“청소년이 미래다”… 입학 축하금 등 전폭 지원

장성군 청소년 정책에 이목이 집중된다. 군은 이달 말부터 초·중·고 신입생에 입학 축하금을 지급한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수당 도입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입학 축하금과 청소년 수당 모두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장성군 교육 복지 실현에 기여하게 된다.
서부권역 삼계면에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을 추진 중이다.
(재)장성장학회의 역할도 인상적이다. 올해 장학금 2억5000만원을 책정하고 최근 장학생 선발을 마무리했다.
다각도로 추진 중인 장성군 청소년 지원사업을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장성군(군수 김한종)이 청소년들이 맘놓고 생활할 수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달 말부터 초·중·고 신입생들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며 하반기에는 청소년 수당도 도입할 예정이다. 서부권역 삼계면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해 문화·예술·여가활동 등 지원에 나서는 등 민선8기 공약사업을 착실히 이행해 갈 계획이다. ‘청소년 문화 한마당’ 댄스 공연중인 장성지역 청소년들. 장성군 제공

●청소년 지원으로 인구증가·지역발전 ‘선순환’

청소년 지원이 미래를 향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 정책이 인재양성만 있는 건 아니다. 체계적인 청소년 지원과 양질의 교육 여건은 지역의 인구 유입 가능성을 높인다.

장성군이 청소년 지원에 행정력을 아끼지 않는 이유 역시 이와 맞닿아 있다. 청소년의 성장은 지역 발전과 결을 같이 하며 중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경제 회생을 이끄는 든든한 기초 체력이 된다.

민선8기 장성군 청소년 지원사업의 선두 주자로 ‘초·중·고 신입생 입학 축하금’을 꼽을 수 있다. 지역 내 학교 신입생에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교육 복지를 실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 “혜택 감사”… 청소년 수당 기대감 ↑

장성군은 입학 여부, 거주지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입학 축하금 지급에 들어간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초등·고교 입학생 부모들은 “3월 말 지급되는 입학 축하금이 기다려진다”며 “구입할 책이 많아 축하금을 보탤 예정이며 다른 학년 아이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군은 장성 청소년 모두를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9~13세 7만원, 14~18세 10만원을 매년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는 ‘청소년 수당’을 올해부터 도입한다.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삼계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문화·예술·여가활동 지원

장성군 청소년 인구는 5178명으로 이 중 1300명이 서부지역인 동화·삼서·삼계면에 거주한다. 수련관 등 청소년 시설이 장성읍에 집중돼 있어 서부 청소년들의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초등 10만·중 20만·고 30만원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초중고 입학생에 축하금 지급

청소년 수당 하반기부터 도입 삼계면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장학생 210명 선정 각종 지원

지역 축제장을 찾은 김한종 군수.

군은 삼계면 청소년 문화의집을 건립해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 활동도 지원할 방침이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재)장성장학회 장학금 지급… 대학생 지원도 추진

(재)장성장학회의 지원도 주목된다. (재)장성장학회는 올해 장학금 2억5000만원을 책정하고 6개월 이상 장성군에 주소를 둔 국내 재학생 가운데 △성적 우수 △다자녀 △특기자 △복지 △위기가정 긴급지원 5개 분야에서 장학생 210명을 모집했다.

심사를 거쳐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70만원, 대학생 최대 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학비 부담이 큰 대학생 지원은 더욱 풍성하다. 장성군은 부모 또는 보호자 모두 3년 이상 장성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대학생 등록금 실 납부액을 (재)장성장학회 기금으로 지원한다.

대학생의 월세나 기숙사비, 전세금 이자 등 주거비도 연 36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시행 첫해인 올해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추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협의, 조례 제정, 장학회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대학생 학비와 주거비 지원 역시 민선8기 장성군 공약사업의 일환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젊은이가 가슴에 행복을 품고 마음껏 꿈을 펼칠 때 지역사회도 희망의 빛을 머금는다”면서 “맞춤 지원과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으며 ‘학문은 장성만한 곳이 없다’는 문불여장성의 전통을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 ‘군민과 소통’… 정주여건·일자리·문화관광 심층 논의

장성군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민과 머리를 맞댔다.

군은 최근 군청 4층 아카데미홀에서 인구감소 대응 군민 토론회를 열었다. 해당 분야 전문지식을 갖췄거나 풍부한 현장 경험을 지닌 주민들이 군민참여단으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장성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는 △주거·정주여건 △인재 육성 △일자리·경제 △문화·관광 4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됐다.

주거·정주여건 분과는 빈집과 빈상가를 리모델링해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고 도시민 세컨드 하우스를 제공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지원제도를 일원화하고 청년 커뮤니티를 강화하자는 제안도 이어졌다. 인재육성 분과는 출산과 보육을 위한 전반적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령기 가족의 지역 만족도가 높긴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중·고교 진학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보다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애니메이션, 미술치료 등 특색 있는 학과를 개설하는 방안을 일례로 들었다.

인구감소 대응 군민 토론회

일자리·경제 분과는 장성이 광주의 위성도시라는 점을 적극 활용해 연계성 강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나노산단 등에 청년 유입을 유도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타 지역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문화·관광 분과는 축령산, 백양사, 황룡강 등 자원을 활용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장성군은 제시된 지역현안, 해결과제, 인구유입 방안 등을 반영해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도 연계해 추진한다. 이달 말 인구감소 대응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사업발굴 보고회도 갖는다. 장성=유봉현 기자